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

‘과학기술사회’ 실현이 일생의 소명

글 | 이강봉 _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aacc409@hanmail.net



지난 12월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유례가 없는 매머드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후 과실연) 창립총회가 있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실연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들이었다. 학계 원로라 할 수 있는 조 순 前부총리와 김시중 前과기부장관을 비롯,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교수,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의 김태유 교수, 김병찬 동국대 부총장, 연세대 민경찬 학부대학장, 고려대 행정학과 염재호 교수, 이공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배철한 삼성 SDI 부사장, 김택진 NC소프트 사장,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총회에서는 2명의 자문위원과 1명의 상임대표, 3명의 공동대표,

3명의 감사를 선출했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상임대표에 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선출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과실연이 있기까지 사재를 털어 산파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생을 공학인으로 고집스럽게 살아오면서 한국의 통신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위해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는 과실연 창립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가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

이러한 목표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과학기술사회’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우리 나라는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

싸여 있고, 그 나라들은 대단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하면 생존을 영위하고, 번영하고, 나아가 세계 일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존할 데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바른 과학기술 사회'가 돼야 한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라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과학기술 그 자체가 고도로 발달돼 있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돼 가는 사회이다. 결국, 바른 과학적 사회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과학기술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즉 과학기술 인프라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인 것이다."

더불어 향후 과실연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실연의 활동전개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 과학기술사회가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주요 정책에 있어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이해집단의 정치적 논리가 앞서 결과를 그르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정 시스템에 있어 과학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위해 정책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교육개혁 역시 과실연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다. "과학기술 교육을 개혁해야 능력 있는 연구원, 엔지니어들을 육성해나갈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 교육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인문사회 지식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전공자가 인문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이 재정립돼야 한다."

최근 황우석 박사 파문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된 과학기술 윤리 문제 역시 과실연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 중의 하나다. 이 대표의 주장은 "과학자의 능력 이전에 과학자 스스로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 모두 공개할 방침

과실연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황 박사 사태와 관련, 중요한 순간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줄기세포 검증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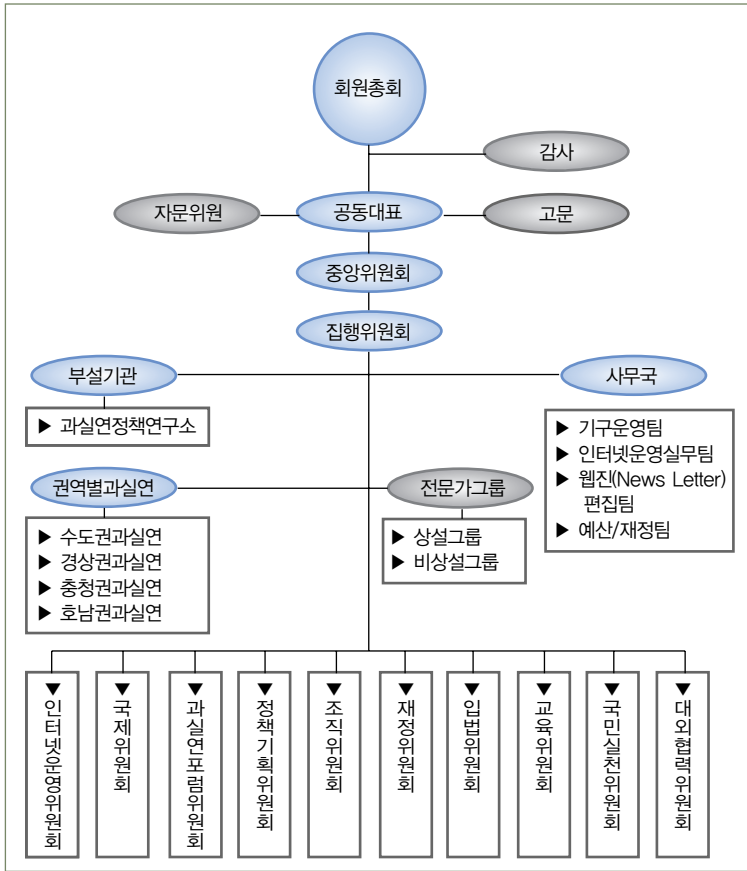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첫번째 성명은 사회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급히 가동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과실연의 활동과 관련, 무엇보다 다른 NGO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과학기술'을 주제로 시민단체를 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중진, 원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만큼 활동 역시 큰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실연 260여 명의 중앙위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미시적인 활동보다는 거시적인 활동에 치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설명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 부문의 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손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과실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회원들이 특별한 이해관계에 휩싸여 있지 않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대표의 설명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바른 판단력을 요구





받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과학기술계 전·현직 인물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서서 자신의 올바른 의사를 표명할 경우 국가 장기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과실연의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다 좋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주목되는 것은 기존 NGO에서 보기 힘들만큼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실천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과실연포럼위원회, 국제위원회, 인터넷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대표는 “이들 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열려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회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과실연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회비는 회원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인 월회비 5천 원, 연회비 6만 원으로 했다”며 “한달에 설렁탕 한 그릇 덜 먹고 과학기술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이메일, 전화회의, 영상회의 등을 통해 수행할 방침이다. “모든 의견 개선, 문제 제기, 여론 수렴, 토론, 자문, 의사 결정 등의 과정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면서 회원들의 충지를 모아나가겠다”며 “과학기술사회 실현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국민 모두 회원으로 참여해주기”를 요망했다.

과실연 조직은 현재 이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조순 전 부총리와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이 자문위원을, 김하석 서울대 교수, 강신영 전남대 교수, 김학수 서강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감사에는 이상천 전 영남대 총장, 오연찬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선임됐으며, 262명이 중앙위원직을 맡고 있다.

〈과실연 중앙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호, 강성군, 강신영, 강신형, 강용수, 강창구, 경종민, 고계원, 고영희, 고인수, 박진우, 백만기, 백성기, 백운수, 변상경, 서영준, 서진호, 성노현, 손동철, 송봉현, 강태진, 홍의석, 황규호, 황기원, 황백, 황선근, 황우석, 황인경, 황일순, 황태익, 박수근, 구수길, 국양, 권숙인, 권영민, 권형주, 금동화, 김건, 김경렬, 김정식, 김기석, 김관식, 김광웅, 김구, 김규원, 김기협, 김대영, 김덕규, 김도연, 김도한, 김문겸, 김명환, 김명희, 김민수, 김병식, 김선영, 김성근, 김성기, 김성조, 김수삼, 김수원, 김수일, 김승조, 김양오, 김영식, 김영오, 김유승, 김익상, 김인준, 김재정, 김종환, 김중수, 김지영, 김진균, 김진형, 김태유, 김택진, 김하석, 김학수, 김현만, 김형기, 김화중, 김희준, 노삼규, 노태천, 문승현, 문신용, 문일, 문희, 민경찬, 민병무, 민병준, 박돈희, 박창규, 박찬순, 박철, 박태호, 박행순, 박화영, 방재욱, 박주성, 송우근, 송해자, 신건철, 신부용, 신성철, 신철영, 신현식, 심창구, 안건혁, 배철한, 백경진, 박상욱, 박상철, 박성한, 박성희, 박영인, 박영준, 박은우, 박종래, 안환, 안규리, 안중호, 양규환, 양봉민, 양지원, 염재호, 오세정, 오연천, 오우택, 오춘식, 오희균, 왕규창, 우성일, 우섭, 유룡, 유명

희, 유상임, 유영제, 유인근, 윤기봉, 윤대희, 윤영관, 유우영, 윤재
 룬, 윤제용, 이공주, 이광형, 이 경,이만형, 이무하, 이문한, 이범희,
 이병기, 이상욱, 이상은, 이상준, 이상천, 이상훈, 이승기, 이승중,
 이승훈, 이 락,이영욱, 이영필, 이왕재, 이우일, 이은철, 이인원, 이
 장규, 이장무, 장수철, 장승필, 장재열, 장호완, 전계석, 전 우,전효
 택, 정갑영, 정명희, 이진제, 이정숙, 이종범, 이종현, 이지순, 이찬
 휘, 이태섭, 이태식, 이판정, 이필상, 이 원,이현덕, 이현철, 이혜숙,

임승순, 임정기, 임정빈, 임주환, 임지순, 임혁백, 임형규, 임현진,
 정광호, 하용출, 조 숙, 박중근, 임경순, 전도영, 정상조, 정석호, 정
 용덕, 정종평, 정진하, 정충기, 정태명, 정태영, 정필훈, 정헌택, 정
 교, 조동성, 조동택, 조 벽, 조병욱, 조영달, 조원호, 조진수, 조진
 형, 조현정, 지은정, 주승기, 진장철, 최길영, 최덕근, 최순자, 최양
 도, 최양희, 최재천, 최항순, 하인중, 한민구, 한병성, 한영남, 허경
 철, 허 남, 허성도, 허의남, 홍두승,홍성욱, 홍성태, 홍승환 ㉔

이병기 상임대표 누구인가?



2003년 부산대에 305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제를 모은 부산 향토기업 (주)태양의 경암 송금조 회장은 지난해 2월 1천억 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해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인문·사회, 생명·과학, 공학, 예술 등 4개 부문에 걸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을 선정, 경암학술상을 시상했는데 첫번째 공학 부문 수상자가 이병기 상임대표였다.

이 대표는 고속 DCT 기법을 발명하고, 동기식 전송 채널 프레임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혼화기법에 대한 이론 체계를 확립해 이 이론을 CDMA 통신의 동기신호 획득과정에 적용, 고속 동기 획득을 가능케 하는 DSA 기법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1억원의 상금을 받는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학문적으로나 리더십에 있어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1998년 6만여 명의 학자들이 모인 IEEE ComSoc에서

한국인 최초로 상임이사직을 맡아 큰 주목을 받는데 이어, 올해에는 ComSoc의 부회장으로 당선돼 IT강국 한국의 입지를 학문적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크고 작은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은 한국인의 손으로 통신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 학술지 JCN(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창간한 일이다. 이 대표가 주도해 2002년 창간한 JCN은 발행 3년째인 올해 세계 60여 개 통신관련 저널 중 인용지수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학인으로서 외고집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대표는 머리 속에 늘 인생의 세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첫번째 목표는 통신 분야에 있어 활발한 학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장으로, ComSoc 학회지 발간 책임자로서, JCC(통신정보합동학술대회) 및 APPC(아시아태평양지역 통신학술대회) 창설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두 번째 목표는 한국 공학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 즉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균형 잡힌 공학교육”을 한국에 도입하는 일이었다. 2000년대 들어 이 일을 위해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으로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밑바탕에 과학기술을 뿌리내리는 ‘과학기술사회’를 안착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12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을 출범시킴으로써 과학기술사회 구축을 위한 첫장정이 시작됐다.